



진지한 여가 비용 탐색

황선환¹ · 김태환¹ · 이문진²

¹서울시립대학교 · ²서울교육대학교

Exploration of Serious Leisure Costs

Hwang, Sun-Hwan¹ · KIM, Teahwan¹ · LEE, Munjin²

¹University of Seoul · ²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the serious leisure costs which were negative outcomes resulted from participation in serious leisure.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serious leisure cost,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 meeting were conducted. The serious leisure costs consisted of five subfactors such as time cost, financial cost, social cost, physical cost, and psychological cos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se preliminary subfactors of serious leisure costs included four items respectively. A total of 350 active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clubs were col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Out of them, data from 265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who rated over 4.0 out of 7.0 were employed for the analyses. Through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the serious leisure cost scale was composed of five subfactors and 15 items finally. The model fit was verified with $\chi^2 = 230.09$, $df=80$, $CFI=.939$, $TLI=.920$, and $RMSEA=.075$. The reliability was also accepted with time($\alpha=.820$), financial($\alpha=.782$), social($\alpha=.898$), physical($\alpha=.724$), psychological cost($\alpha=.803$). The serious leisure cost scaled roughly explored would be used for negative sphere research of serious leisure and these research would be beneficial to improve the body of knowledge for serious leisure.

Key words : Serious Leisure, Negative Factor, Serious Leisure Cost

주요어 : 진지한 여가, 부정적 요인, 진지한 여가 비용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unjin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96 Seochojoonga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10-4732-5464, E-mail: sky99722@hotmail.com

Received: April, 27, 2017 Revised: May, 3, 2017 Accepted: June, 19, 20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적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2014)에 따르면 여가시간은 2012년 평일 3.3시간에서 2014년 3.6시간으로, 휴일 5.1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여가 산업의 성장을 동반하였으며 여가활동 참여자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여가활동 참여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인식, 즉 여가의 중요성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여가 시간과 여가활동 참여인구의 증가 및 여가인식의 확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의 여가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재충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현대의 여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었다.

여가 시간과 여가활동 참여인구의 증가 및 여가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가활동 참여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TV시청, 휴식, 산책 등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여가활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Stebbins(1997, 1998)는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상적 여가란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비교적 단기간 유지되는 즐거움을 제공받는 여가활동이다(Stebbins, 1997). 반면 진지한 여가는 참여자가 진지한 태도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며 활동에 대한 기술, 지식, 경험 등을 획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력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Stebbins, 1992).

진지한 여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아실현, 자기표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편익들은 일상적 여가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지한 여가참여가 장려되었다.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공동체와의 일체감 등은 삶의 질과 웰빙에 기여하여 최적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시킬 수 있다(Stebbins, 2007). 이와 같은 진지한 여가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은 여가 편익(leisure benefit)의 개념이며 여가 편익은 여가활동 참여자들이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물이다(전태준, 한우진, 2007). 진지한 여가의 편익에 대한 연구들은 진지한 여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황선환, 김미량, 이연주, 2011),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형훈, 2013),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강희엽, 이철원, 김형훈, 2015), 여가 만족(김미량, 김동제, 권창기, 2012)에 대한 연구와 같이 대부분 진지한 여가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모든 여가가 여가 편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가활동 참여자의 상이한 여가태도, 여가몰입, 동기요인 인한 만족도와 결과물은 차이가 발생한다(유현순, 박명국, 2010; 한제걸, 권오일, 2008). 이와 같은 논리로서 진지한 여가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운동중독, 운동강박, 사회적 갈등, 신체적 부상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가학에서는 이러한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간과해왔다. 단지 소수의 연구(이문진, 이연주, 2010; 이문진, 황선환, 2014)에서만 적극적 여가활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해왔다.

진지한 여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에서 이루

어졌지만 대부분 질적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Major(2001)는 진지한 여가의 보상과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신체적 비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Stebbins(2007)는 진지한 여가 참여가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대인관계), 경제적 비용, 시간 소비, 다른 여가활동 참여 기회 박탈, 실망감(보잘 것 없는 결과, 다른 이들에 의한 실망), 싫음(효과 없는 그룹 리더쉽, 권력다툼 / 정책들), 긴장감(신경과민) 등의 여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urnell-Read(2016)은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지한 여가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Lamont & Kennelly(2012)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사회적 갈등을 설명함으로써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계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 진지한 여가와 운동중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김민규, 2015; 박수정, 2007; 한혜원, 홍혜전, 2014)들은 중독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연구이다. 특히 이문진, 황선환(2014)의 연구는 진지한 여가와 같이 적극적 여가활동을 설명하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인식하는 가족기능은 낮아짐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여가활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이 존재하며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은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을 객관적이고 과학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에 대한 지식체의 확장은 물론 진지한 여가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 비용 (serious leisure cost)을 개념화 하여 진지한 여가 비용의 구성요인과 측정 문항을 탐색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진지한 여가 비용 탐색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 소재 스포츠 동호회에서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설문 조사가 용이하도록 동호회 회장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사 당일에도 참가자 선정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동호회 내에서 주 1회 이상 꾸준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비교적 열정적인 참여자로 판단되는 대상을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동호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대회가 활성화 되어있는 테니스, 수영, 볼링, 축구, 농구, 스쿼시, 야구 총 7개 종목의 동호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목별 50명씩 총 3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18부를 1차적으로 제외하고 332부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다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여 평균 7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진지한 여가 수준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332부의 자료 중 265부의 자료를 진지

한 여가 참가자로 판단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115명)에 비해 여성(150명)이 다소 많았으며,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여가활동 참가 특성을 파악해본 결과 평균 5년 반 정도의 참가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달 중 약 11일 정도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회 참가 시 2시간 30여분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월간 여가스포츠 활동 관련 지출은 1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변인	분류	n	%
성별	남	115(132)	43.4(39.8)
	여	150(200)	56.6(60.2)
연령	10대	30(40)	11.3(12)
	20대	129(151)	48.7(45.5)
	30대	22(25)	8.3(7.5)
	40대	40(45)	15.1(13.6)
	50대	31(51)	11.7(15.4)
	60대	13(20)	4.9(6)
학력	고졸	163(211)	61.5(63.9)
	대졸	82(99)	30.9(29.8)
	대학원졸	20(21)	7.6(6.3)
수입	100만원 이하	136(172)	51.3(51.9)
	100~300만원	51(65)	19.2(19.5)
	300~500만원	56(65)	21.1(19.5)
	500만원 이상	22(30)	8.4(9.0)
	결혼	74(99)	27.9(29.8)
결혼여부	미혼	187(224)	70.6(67.5)
	이혼	3(5)	1.1(1.5)
	사별	1(4)	.4(1.2)
활동참가	기간	5.60(5.77)	년
	빈도	11.10(10.72)	일
	강도	2.66(2.60)	시간
	지출	10.77(10.30)	원
	Total	265(332)	100

* ()는 설문참가자 전체 332명의 자료임

2. 연구절차

진지한 여가 비용을 개념화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진지한 여가 비용의 구성개념을 시간적 비

용,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 신체적 비용, 심리적 비용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개념화 하였다. 구성된 진지한 여가 비용의 하위개념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거나 언급되었던 진지한 여가 비용 관련 문항을 각 구성 요인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가 부재하거나 문항의 수가 부족한 경우 여가학 교수 2인, 여가학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제작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문항들을 통합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하거나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5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문항을 토대로 진지한 여가 척도와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진지한 여가로서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목적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작성 직후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진지한 여가 비용 문항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5문항, 여가활동 참가특성 4문항, 진지한 여가 비용 관련 예비 20문항, 진지한 여가 측정을 위한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진지한 여가 비용

진지한 여가 비용 탐색을 위해 5개 구성 개념별 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20문항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 질문지를 제작하여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여가비용의 수준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진지한 여가

연구 참가자들의 진지한 여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미량(2008)이 개발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6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7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7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인 경우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문항선별과 타당화 검증으로 구성된다. 문항선별을 위해 각 문항별 최솟값, 최댓값, 척도, 왜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화 과정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활동 참가정도와의 비교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토하였다. Cronbach’s α 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문항선별과 타당화 분석은 SPSS 24.0과 AMOS 20.0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진지한 여가비용 개념화

진지한 여가 비용 개념을 파악하고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진지한 여가 비용을 시간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 신체적 비용, 심리적

비용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조작적 정의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진지한 여가 비용의 조작적 정의

변인	정의
시간적 비용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과도하게 소비 되는 시간적 손실
경제적 비용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과도하게 소비 되는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용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해결 비용
신체적 비용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
심리적 비용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2. 진지한 여가 비용 문항 구성

구성된 진지한 여가 비용 5개 하위요인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거나 언급되었던 진지한 여가 비용 관련 문항을 각 구성 요인별 4개 문항씩 추출하였다. 선행연구가 부재하거나 문항의 수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제작하여 추가하였다. 도출된 5개 하위요인을 토대로 구성된 20개 예비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표 3>과 같다.

5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문항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S대 30명의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항의 가독성과 문항의 적절성, 내용의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3. 진지한 여가 비용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진지한 여가 비용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최대우

표 3. 진지한 여가 비용 예비 문항

변인	Code	문항
시간적 비용	co1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co2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을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co3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co4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경제적 비용	co5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이동 경비를 많이 투자한다.
	co6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회비, 시설이용료)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co7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에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co8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모임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사회적 비용	co9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
	co10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장 관계에 소홀해진다.
	co11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의 책무(가사 분담, 육아 등)에 소홀해진다.
	co12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무(학업, 직장 업무 등)에 소홀해진다.
신체적 비용	co13	나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는 많은 체력을 소모한다.
	co14	나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는 빈번한 부상을 유발한다.
	co15	나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는 신체(근 골격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co16	나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는 부정적 외형(ex: 피부 그을림, 기미, 주근깨 등)의 변화를 초래한다.
심리적 비용	co17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적 있다.
	co18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분노를 느낀 적 있다.
	co19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긴장감을 느낀 적 있다.
	co20	나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몰입에 빠진 경험이 있다.

도법, 회전 방법은 베리맥스를 적용했으며, 고유 적재량(factor loading) 0.4 이상인 문항을 선택했
 치(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 다. 이 과정에서 5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남

표 4. 진지한 여가 비용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Factors	Code	Item	M	S.D.	EFA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Alpha (α)	
시간적 비용	co1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4.23	1.50	.579	4.96 (15.61)	.820	
	co2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4.69	1.35	.808			
	co3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4.99	1.18	.843			
	co4	이동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문항삭제
경제적 비용	co5	이동 경비를 많이 투자다.				문항삭제		
	co6	참여(회비, 시설이용료)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3.98	1.45	.556	2.35 (14.50)	.735	
	co7	필요한 장비에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4.16	1.42	.612			
	co8	관련된 모임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3.33	1.60	.719			
co9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	2.63	1.49	.748				
사회적 비용	co10	직장 관계에 소홀해진다.	2.36	1.46	.887	1.94 (12.92)	.898	
	co11	가정의 책무(가사 분담, 육아 등)에 소홀해진다.	2.40	1.47	.840			
	co12	사회적 책무(학업, 직장 업무 등)에 소홀해진다.						문항삭제
	co13	많은 체력을 소모한다.	4.42	1.57	.586			
신체적 비용	co14	빈번한 부상을 유발한다.	3.24	1.56	.663	1.51 (10.10)	.724	
	co15	신체(근 골격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2.83	1.53	.581			
	co16	부정적 외형(ex: 피부 그을림, 기미, 주근깨 등)의 변화를 초래한다.						문항삭제
	co17	실망감을 느낀 적 있다.	3.36	1.65	.686			
심리적 비용	co18	분노를 느낀 적 있다	3.27	1.70	.968	1.40 (10.01)	.799	
	co19	과도한 긴장감을 느낀 적 있다.	4.06	1.74	.501			
	co20	과도한 몰입에 빠진 경험이 있다.						문항삭제

은 15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누적분산은 62.449%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를 이용한 문항내적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은 .724~.898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4. 진지한 여가 비용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정제된 5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된 진지한 여가 비용의 구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수렴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적합도, 요인 적재값, 측정오차,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진지한 여가 비용의 모형 적합도가 $\chi^2=227.874(df=80, p<.001)$, $\chi^2/df=2.848$, CFI=.939, TLI=.920, RMSEA=.075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요인 적재값의 경우 .608~.910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C.R.)의 경우 .919~.974로 충분히 높게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의 경우에도 .793~.927로 나타나 진지한 여가 비용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요인의 상관계수가 .120~.518로 나타났다. AVE값 중 가장 작은 값이 .793으로 상관관계 제곱 중 가장 큰 .268(=.518²)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7. 진지한 여가 비용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시간적	1	.493**	.120	.284**	.276**
2. 경제적		1	.356**	.261**	.239**
3. 사회적			1	.424**	.350**
4. 신체적				1	.518**
5. 심리적					1

** $p<.01$

표 5. 진지한 여가 비용의 확인적 요인 분석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227.874	80	2.848	.939	.920	.075

표 6. 진지한 여가 비용의 확인적 요인 분석

Factors	Item	S.E.	Error	CR	AVE
시간적 비용	← co1	.691	.106	.959	.888
	← co2	.858	.078		
	← co3	.854	.061		
경제적 비용	← co6	.714	.104	.942	.846
	← co7	.755	.102		
	← co8	.789	.105		
사회적 비용	← co9	.804	.072	.974	.927
	← co10	.910	.053		
	← co11	.897	.055		
신체적 비용	← co13	.668	.139	.919	.793
	← co14	.778	.121		
	← co15	.649	.125		
심리적 비용	← co17	.818	.169	.925	.806
	← co18	.846	.123		
	← co19	.608	.129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지한 여가 비용을 개념화하고, 척도를 개발을 위한 하위 구성 개념과 문항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진지한 여가 비용은 진지한 여가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영역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시간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 신체적 비용, 심리적 비용의 5개 구성 개념으로 개념화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여가중독과 여가강박은 과도한 여가활동으로 인하여 반드시 여가활동을 해야 한다는 참여자의 심리적 상황을 의미한다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진지한 여가 비용은 진지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속적이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진지한 여가의 시간적 비용이란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로 인하여 과도하게 소비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Bendle & Patterson(2009)와 Dennis & Zube(1988)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은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진지한 여가의 경제적 비용이란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과도하게 소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진지한 여가를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들 (Bendle & Patterson, 2009; Dennis & Zube, 1988; Thurnell-Read, 2016)이 있었다. 특히 Thurnell-Read(2016)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은 사회적 만남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활동비용 또한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진지한 여가의 사회적 비용이란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의미한다. 진지한 여가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갈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라톤 참가자의 이혼율이 일반인의 이혼율에 비해 3.5배 높다는 통계는 진지한 여가의 사회적 비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있다(헤럴드 POP, 2006. 4. 8). 진지한 여가와 업무, 가사, 가족과 시간보내기와 같은 의무간의 갈등을 언급한 Lamont, Kennelly & Wilson(2012)의 연구와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자가 자신이 소속된 여러 집단사이의 경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Gillespie, Leffler & Lerner(2002)의 연구는 진지한 여가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진지한 여가는 아니지만 적극적 여가 참여의 형태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관련된 이문진, 황선환(2014)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가 인식하는 가족기능이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에게도 사회적 비용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진지한 여가의 신체적 비용은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의

미한다. 이는 테니스 엘보 환자가 계속해서 테니스에 참여하는 행동이나, 연골 판이 다 닳아 버린 마라톤 참가자가 계속해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현상처럼 운동 중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tebbins(1992)는 진지한 여가활동은 신체적 부상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카약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Bartram(2001)의 연구와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러너를 대상으로 한 Major(2001)의 연구에서도 진지한 여가 활동참여로 인해 신체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끝으로 진지한 여가의 심리적 비용이란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진지한 여가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도한 긴장감이나 분노, 실망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Stebbins(2007)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싫은 감정, 긴장, 실망 및 이기심)을 제시하였으며, Gibson, Willming & Holdnak(2002)의 연구와 Goff, Fick & Oppliger(1997)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참여 속에서 개인적 긴장과 대인적 긴장이 발생함을 증명하며 진지한 여가의 심리적 비용을 설명하였다. Thurnell-Read(2016)는 진지한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조직 속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긴장과 대립을 만들어 내며,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이나 활동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진지한 여가의 심리적 비용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비용을 개념화 하고 구성개념 탐색하였으며, 탐색된 구성개념을 토대로 문항을 제작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진지한 여가 비용은 시간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 신체적 비용, 심리적 비용의 5개 하위요인으로 탐색되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3개 문항을 구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이며 추후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정밀한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하위 구성개념 간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은 결과(사회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가 있어 추가적인 타당도 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진지한 여가 비용 척도는 앞으로 다양한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혹은 여가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진지한 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희엽, 이철원, 김형훈(2015). 축구 참여 여대생의 진지한 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여가학연구*, 13(4), 39-56.

김미량, 김동제, 권창기(201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만족 및 행복의 관계: 진지한여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1(1), 387-396.

김민규(2015). 진지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중독의 관계. *여가학연구*, 13(1), 89-104

김형훈(2013). 진지한 여가, 여가몰입, 행복감의 구조모형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2), 411-420.

네이버 뉴스(2006). 생활중심으로 들어온 '레저광'.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박수정(2007). 스포츠여가 참여자의 몰입, 진지한 여가, 마니아 및 중독의 인과모형 분석. *한*

국여성체육학회지, 21(6), 125-136.

유현순, 박명국(2010). 볼링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여가태도, 여가몰입,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3), 109-122.

이문진, 이연주(2010).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403-412.

이문진, 황선환(2014).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참가자의 여가만족과 운동중독, 배우자의 가족기능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29-40.

전태준, 한우진(2007).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이득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1), 195-207.

한제걸, 권오일(2008).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69-83.

한혜원, 홍혜전(2014). 진지한 여가 참여자인 테니스 동호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운동몰입 및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3), 101-113.

황선환, 김미량, 이연주(2011). 진지한 여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9(2), 1-16.

Bartram, S. A. (2001). Serious leisure careers among whitewater kayakers: A feminist perspective. *World Leisure Journal*, 43(2), 4-11. doi:10.1080/04419057.2001.9674225

Bendle, L., & Patterson, I. (2009). Mixed serious leisure and grassroots organizational capacity: A study of amateur artist groups in a regional Australian city. *Leisure Sciences*, 31(3), 272-286.

Dennis, S., & Zube, E. (1988).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of outdoor recreationists: An exploratory study. *Leisure Sciences*, 10(4), 229-245.

Gibson, H., Willming, C., & Holdnak, A. (2002).

- “We’re Gators... not just Gator fans”: Serious leisure and University of Florida footbal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 397–425.
- Gillespie, D., Leffler, A., & Lerner, E. (2002). If it weren’t for my hobby, I’d have a life: Dog sports, serious leisure, and boundary negotiations. *Leisure Studies*, 21(3–4), 285–230.
- Goff, S. J., Fick, D. S., & Oppliger, R. A. (1997).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serious leisure and spouses’ perceived leisure–family confli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47–60.
- Lamont, M., & Kennelly, M. (2012).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participant motives among committed amateur triathletes. *Leisure Sciences*, 34, 236–255.
- Major, W. F. (2001). The benefits and costs of serious running. *World Leisure Journal*, 43(2), 12–25.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25(2), 251–272.
- Stebbins, R.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 MQUP.
- Stebbins, R. A. (1997). Casual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Leisure Studies*, 16(1), 17–25.
-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Thurnell–Read, T. (2016). ‘Real ale’ enthusiasts, serious leisure and the costs of getting ‘Too serious’ about beer. *Leisure Sciences*, 38(1), 68–84.
doi:10.1080/01490400.2015.1046618
- Wallace, T. (2006). ‘Working of the train gang’: Alienation, liminality and communitas in the UK preserved railwa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3), 218–233.